

秋위에 퐁퐁...겨울 패션 아이템 핫하네

광주신세계, 노스페이스 솜패딩 '눅시' 인기...17일부터 어그 팝업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17~19일 아우터 할인 행사...패딩 등 매출 급증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두터운 패션 아이템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프로모션과 겨울 패션 아이템 판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한다.

13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떨어진 기온의 영향으로 지난주 패션 아이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 수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는 이러한 매출 추이를 반영해 패딩 점퍼와 방한부츠 등 다양한 겨울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우선 광주신세계 본관 7층과 지하 1층에서 '노스페이스'의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노스페이스'의 솜패딩 제품인 '눅시'는 '있을 때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노벨티 눅시'는 솜패딩 유행을 선도하며 판매가보다 훨씬 높게 리셀가가 형성되는 등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대체로 색상과 세련된 크롭 디자인의 노스페이스 패딩은 윤리적 다운 인증(RDS)을 받은 구스 다운 충전제와 얇고 가벼

운 걸감을 사용해 보온성과 경량성도 우수하다.

눅시 라인은 30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 셀러로 대표제품으로는 '노벨티 눅시 다운 자켓' (39만8000원), '1996 워터 쉴드 눅시 자켓' (45만9000원) 등이 있다.

광주신세계 본관 3층에 위치한 '어그(UGG)' 매장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어그는 최근 북고의 유행으로 과거 2000년대 패션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매출 신장률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어그는 양털과 양가죽 소재의 어그부츠, 발등을 덮는 모카신, 솜 어그부츠 등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류, 귀마개, 장갑 등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어그에서는 시그니처 쉘스킨 코트 슬리퍼 (17만8000원), 스웨이드 레더 미니 부츠 (21만8000원), 헤리티지 레인부츠 (27만8000원)를 판매 중이다. 또 광주신세계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층 이벤트홀에서 어그 팝업 스토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노스페이스 매장 직원이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겨울 패딩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백화점도 오는 17~19일 패딩 등 아우터 브랜드별 행사를 한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패션 상품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 대비 50% 늘었다. 이 중 럭셔리 웨어는 45%, 스포츠는 25%, 아웃도어는 65% 각각 신장하는 등 아우터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추워진 날씨가 백화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11월과 12월은 월별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달에 속하고, 패션 브랜드들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해 실적이 좌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17~19일 프리미엄 패딩과 아웃도어 패딩 등 아우터 브랜드별 사은 및 세일, 팝업을 진행한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자 월말에 예정된 행사를 한 주 앞당긴 것이다.

캐나다구스, 노비스, 에르노, 파라점퍼스, 듀베티카, 맥케이저, 퓨잡 등이 참여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 10%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노스페이스, K2, 노르디스크 등 아우터도 브랜드들도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 10%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노비스는 아우터와 야테시XF 등 100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을 10% 할인 판매하며 올해 가을 겨울 신상품 구매 시 버킷햇을 감사품으로 증정한다.

파라점퍼스는 아우터 구매 시 에어팟 파우치를 주고 맥케이저는 제품 구매 시 맥케이저 비니를, 퓨잡은 구매 고객에게 수제 초콜릿을 각각 증정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3분기 영업이익 1조9966억원...10분기 만에 흑자

올 4분기 6000억원 영업손실 예상 국제 유가·환율 불확실성에 지속 불투명

한국전력이 올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한전은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흑자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적인 에너지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팔 전쟁과 등 여파로 국제 유가 추가 인상 우려가 크고 원·달러 환율도 당초 전망보다 높게 형성돼 4분기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13일 연결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이 1조9966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5309억원 영업손실)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3분기 매출액은 24조47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 순이익은 8333억원으로 작년 동기(5조8842억원 손실)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올해 1~3분기(1~9월) 전기 판매 단가는 작년 동기보다 29.8% 올랐고, 전기 판매 수익도 2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 하락 등으로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약 2조6600억원 감소했다.

한전은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차례

의 요금 조정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흑자 지속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증권가는 한전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고유가·고환율 환경 탓에 올해 4분기에 다시 6000억원 대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21년 이후 쌓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한전의 올해 누적 영업이익이 약 6조5000억원에 이르면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여전히 약 45조원에 이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은 경제 마스터즈, 서해어업관리단 견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홍철)는 지난 8일 '한은 경제 마스터즈'와 함께 서해어업관리단을 견학하고 목포 고하도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참가 대학생들은 서해어업관리단에 방문해 어업인 대상 해상 지원 프로그램,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지역내 수산자원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가어업지도선의 주요 장비 등을 견학 체험했다.

이어 고하도 일대에서 보해양조의 플로깅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양 환경 보호활동을 펼쳤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참가 대학생들은 필드트립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 지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내 다양한 경제활동을 체험

하고 향후 진로 선택에 필요한 현장 경험을 체득하였다고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3.76 (-5.90)
↓ 코스닥	774.42 (-14.89)
↑ 금리 (국고채 3년)	3.877 (+0.051)
↑ 환율 (USD)	1325.10 (+8.30)

전남도, 무역의날 기념 수출기업·유공자 접수

24일까지 신청

전남도가 제60회 무역의날을 맞아 세계 경제 둔화 등 어려운 교역 여건을 극복하고, 전남 수출 확대에 공헌한 수출기업과 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전남도 수출상과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한다.

전남도 수출상은 수출실적과 수출 증가율, 직수출 비중, 신시장 개척 등을 심사해 수출기업 7명, 유공자 9명 등 총 18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출실적 기간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수출기업 포상 신청 자격은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수출 유

공자 신청 대상은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이다.

수출기업이나 유공자는 신청서, 이력서, 공적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수출 유관기관 수출 업무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권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올해 수출 확대에 성과를 낸 기업과 수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만큼 기업인과 수출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용이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